

한국 가톨릭 큰별 지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善終)

향년 87세...명동성당에 빈소

한국 가톨릭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이 16일 오후 6시 12분께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선종(善終)했다. 향년 8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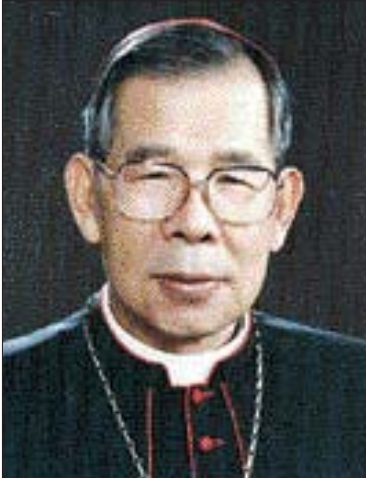
〈관련기사·화보 3면〉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김 추기경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20일 오전 1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가지며 장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용인공원묘지 내 성직자 묘역으로 정해졌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주치의였던 강남성모병원 정인식 교수는 “추기경께서는 노환에 따른 폐렴 합병증으로 폐 기능이 떨어져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스스로 호흡했다”면서 “선종 때까지 큰 고통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기경께서는 평소 늘 하시던 말씀대로 임종을 지켜본 교구청 관계자들과 의료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다”고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전했다.

고인은 지난해 7월 노환으로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한 뒤 한때 호흡 곤란으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면서 위 중실이 나돌았으나 선종 순간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지 않은 채 스스로 호흡하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22년 5월 대구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1년 사제품을 받았고 1966년 초대 마산교구장을 거쳐 1968년 대

주교로 승품한 뒤 서울대교구장에 올랐다.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한국인 최초 추기경으로 서임된 고인은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아시아 천주교 주교회의 구성 준비위원장 등을 역임한 뒤 1998년 정년(75세)을 넘기면서 서울대교구장에서 은퇴했다.

고인은 1971년 성탄 자정 미사에서 장기집권으로 향해가는 박정희 정권의 공표정치를 비판하는 강론을 한 것을 시작으로 유신독재와 싸웠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때 권력에 맞서 싸우는 마지막 보루로 명동성당을 지켜내는 등 민주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기독교 등 김추기경의 선종 소식을 접한 광주전남 종교계는 “우리 시대의 큰 목자를 잃었다”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천주교광주대교구청(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은 17일 오전 10시30분 주교좌 임동성당에서 사제평의회를 개최, 조문단 구성과 빈소 마련, 미사 등 구체적인 추모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연남뉴스



‘신입생 환영회’의 계절이 왔다. 매년 이맘때면 과도한 음주와 위험한 미션 수행으로 인해 논란을 빚기도 하는 신입생 환영회가 각 대학별로 시작됐다. 16일 오후 전남대 교정에서 ‘새내기 배움터’에 참가한 학생들이 선배의 구령에 맞춰 ‘오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고교 학업성취도 전국 2위

전남 초등교육 강제...학력 미달 학생도 전국 평균보다 적어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광주지역 고교가 전국 2위에 오르는 위력을 발휘했다. 〈관련기사 5·6면〉

특히 광주·전남은 ‘학습 부진자’를 뜻하는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돼 실력의 상향 평준화 현상이 뚜렷해졌음을 입증했다.

반면 광주의 초등학생 성적은 하위권에 머물렀고, 전남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실력 저하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별 맞춤형 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총 196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에 걸쳐 치른 학업성취도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는 ‘보통학력 이상’과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나눠 학생 비율을 비교했으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구분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교 1학년 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80.6%)와 영어(73.5%), 수학(66.1%)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제주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사회(49.0%)와 과학(64.1%)은 4위에 올랐다. 5개 과목을 포함한 평균 성취 수준에서도 제주(73.6%)에 이어 광주는 66.8%로 2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또 중학교 3학년은 영어 4위, 국어·수학 6위, 사회 10위, 과학 11위 등 중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초등학교 6학년은 영어 6위, 수학 10위, 사회 12위, 과학 13위, 국어 16위 등 하위권에 그쳤다.

전남은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 4위, 사회·수학 7위, 과학·영어 8위 등 중위권에 올랐고, 중학교는 사회 12위, 국어·과학 14위, 수학 15위, 영어 16위, 고등학교는 사회 7위, 국어·수학·과학 11위, 영어 12위 등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하지만, 학력이 기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전국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초·중·고교 순으로 각각 2.38%, 10.36%, 8.96%로 조사됐

며, 광주는 2.12%, 8.56%, 4.72%에 불과했다.

농·어촌 지역 등이 많아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전남도 2.02%, 11.46%, 7.08%로 중학교를 제외하곤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지역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낮은 것은 농어촌 학교의 특성상 방과 후 학습과 교사·학생 간 일대일 교육 등이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라며 “다만 중·고교로 갈수록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교육 증가와 농어촌 지역의 우수 인재 대도시 유출 등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역 교육청별로는 서울 강남교육청 관내(강남·서초구) 학생들의 실력이 두드러졌다. 강남교육청은 초6의 수학, 영어 두 과목에서 보통 이상 학생 비율이 각각 93.6%, 95.1%로 전국 최고를 기록해 최하위를 기록한 곡성(58.1%, 50.0%)과는 무려 40%포인트 안팎의 차이가 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단위:%)

초등학교 6학년				
과목	지역	광주	전남	전국
국어		2.38	1.8	2.5
사회		2.2	2.0	2.5
수학		1.4	1.5	1.7
과학		2.0	1.9	2.2
영어		2.7	2.9	3.0
5 과목 평균		2.12	2.02	2.3

중학교 3학년				
과목	지역	광주	전남	전국
국어		7.2	9.4	9.0
사회		9.3	12.6	11.6
수학		10.5	14.7	12.9
과학		10.5	12.4	11.7
영어		5.3	8.2	6.6
5 과목 평균		8.56	11.46	10.36

고등학교 1학년				
과목	지역	광주	전남	전국
국어		2.4	3.8	5.5
사회		4.8	8.4	11.8
수학		6.2	7.8	8.9
과학		6.2	9.8	12.5
영어		4.0	5.6	6.1
5 과목 평균		4.72	7.08	8.96

서머타임제 빠르면 내년 5월 시행

정부가 16일 발표한 녹색성장 비전에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머타임제(일광절약 시간제) 조기 도입안이 포함돼 주목된다.

서머타임은 해가 일찍 뜨는 여름철

에 하루 일과를 빨리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다.

서머타임(일광절약 시간제)이 20년 여년만에 재시행될 경우 첫 시행시점

은 내년 5월이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지원실장은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내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면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라며 “시행시기는 검토해야 하지만 이르면 내년 5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머타임이 마지막 시행됐던 1987~1988년에 5월 둘째주에 시행이 됐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서머타임의 도입효과에 대해 김 실장은 “전기수요는 0.3%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머타임은 에너지 절약만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낮시간을 1시간 더 활용하면 일반 근로자들의 여가시간, 자기개발 시간이 더 늘기 때문에 레저산업 등에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민용, 소양, 시정으로
다들 다룬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조국에 오십시오!
광산대학교!!!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전남에서 찾으십시오~

전라남도농수산물진흥원은 전국 친환경 농수산물 5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수산물 도매 모은 유통센터, 프·콜·고급학교에 3년제 학교급식 식재료로 100% 공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통방안 공개, 소비자 상담 센터, 납품 업체는 많고...
농·수·산·림, 전라남도는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전라남도
농수산물유통센터
농수산물유통센터
농수산물유통센터